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2호 [주제 제 25345호] 주제 105 (2016)년 7월 20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 발사훈련을 지도 하시였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비범한 정도의 손길 아래
강대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세, 주체조선의 막강한
국력이 만천하에 힘 있게
파시 되고 천리방선초소
마다에 총정의 200일전
투를 전투력강화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여나가기 위한
백두산훈련열풍이 더욱 세
차게 휘몰아치고 있는 속에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
발사훈련이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
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
하시였다.

리만건동지, 리병철
동지, 홍승무동지, 김정식



철저히 준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동력이나 타격력
에 있어서 언제 봐도 정확
하고 치밀하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는 통행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핵무기연구부문의 과학
자, 기술자들, 조선인민군
전략군 지휘성원들에 개
핵공격체계가동의 신속성
과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
하고 주체적인 화력타격
전법을 더욱 완성하며
다양한 탄도로케트들을
개발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훈련지도를 받은 조선인민
군 전략군 장병들은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훈련장
들을 찾고 찾으시며 전략군
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동지를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핵무기연구부문의 과학
자, 기술자들이 통행하였다.

어둠도 채 가서지지 않은 이른새벽
발사훈련장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게 된 화성포병들의 피끓는 심장마
다에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뜨거운 체취가
어려있는 무적의 화성포로 전쟁평신자들
을 불이 번쩍 나게 탑세기고 단숨에
통일의 대업을 이룩할 결사의 각오가 활
화산처럼 타번지고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관인 전략군대장
김락겸동지, 정치위원 전략군중장 박영
래동지가 맞이하였다.

발사훈련에는 남조선주둔 미제침략군
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조선
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참가하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략군
사령관 김락겸대장을 비롯한 지휘성원
들과 함께 발사장을 돌아보시며
탄도로케트발사훈련준비정형을 직접
로해하시고 발사계획을 청취하신 다음

훈련을 시작할 때 대한 명령을 내리시
였다.

천둥같은 폭음이 대지를 뒤흔드는 속에
거대한 불줄기들을 뿜으며 탄도로케트들
이 침착히 날아올라 푸른 하늘가에 원쑤
격멸의 비행운을 자랑차게 새기었다.

이번 발사훈련은 미제의 핵전쟁장비
들이 투입되는 남조선작전지대 안의
항구, 비행장들을 선제타격하는 것으로
모의하여 사거리 를 제한하고 진행하였
으며 목표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탄도
로케트에 장착한 핵탄두폭발조종장치

의 동작특성을 다시 한번 검열하였다.
온갖 로고와 실형을 다 바치고 계시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송고한
뜻을 짐작깊이 새기고 조성된 엄중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모든 핵타격수단들
을 항시 적인 발사대기 상태에 두고
만단의 결전진입태세를 갖춤으로써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전체 조선인민의 멸적의 의지를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탄도로케
트발사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전략군
화성포병들은 그 어떤 불의의 명령에도

본사정치보도반



200일전투장마다에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라번진다

대고조진군의 북소리높이 전투성과 확대

청진시 안의 공장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 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리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 의의를 얹고 총력기여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분위기를 힘 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청진시의 중요공장들에서 200일전투성과가 날을 따라

200일전투목표

충정의 200일전투시작부터 세멘트증산률을 향해 벌어진 청진세멘트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40여 일 만에 200일전투 세멘트생산목표를 60%이상 수행하였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강역제일주의의 기치밑에 200일전투목표를 기鬟한 앞 달려 절명하기 위한 충산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지배인 조창수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대내외의 혁명적열의를 풀어놓는 한편 설비들의 만기동보장을 위한 사업을 짜고 끌고있다. 종업원들은 내부에 비품 탐관동원하고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펼쳐 많은 방의자료

50여 가지 새

청진스레드공장에서 생산과 과학기술의 일제화를 실현하여 새 제품개발성을 부단히 확대하고있다.

전재의 다양화, 다종화,

비날론과 염화비닐생산계획 매일 1.5배이상 넘쳐 수행

2.8 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비날론과 염화비닐생산에서 혁혁한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당 제 7차대회 정신을 높이 달고 200일전투의 첫 달개획을 200%로 넘쳐 수행 한 일군들은 7월에 들어와서도 비날론과 염화비닐생산계획을 매일 1.5배이상으로 수행하며 질풍같은 속도로 내달리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넘김없이 힘써원하고 기술혁신운동과 사회주의경쟁력을 활발히 벌여 생산성의 양상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현 할기업일군들은 생산자대중이 지난 시기의 작업방법과 일본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과학기술로 출판하는 데 기여하는 도수를 높이고있다.

일군들은 직장별, 작업별, 개인별 사회주의경쟁을 치열하게 조직하고 매일매일의 생산실적이 명백히 표시되는 경쟁도표판에서의 하루전투총화를 통하여 동지들이 당에 대한 자신의 충성의 뜻과 품스로스로 출발하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 일군들이 현 할기

최근간 남시축산기계공장이 세계와 담당해 겨루기만한 배심을 가지고 축산기계생산에서 전에없는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충정의 70일전투기간에 세포지구 축산기계설비장을 보내며 100대의 축산설비를 생산하면서 7종의 현대적인 축산설비들을 새롭게 연구개발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적봉쇄를 끊고자 노력하는 당 중앙위원회 특별감사를 보내자, 기상과 함께 축산설비를 생산하는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힘을 모아서 축산설비들을 생산하는 데에 힘을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군들은 축산설비를 생산하는 데에 힘을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군들은 축산설비를 생산하는 데에 힘을 놓고 있다.

하지만 지배인 손령호동무의 친절은 단호하였다.

그 과정에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기대한 이상으로 초미세설비를 활용하여 축산설비를 생산하는 데에 힘을 놓고 있다.

여러분 문제는 헌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때 공장에서는

확대되고있다. 시의 당, 행정일 군들도 모두들 생활하는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 생산자대중을 따라온다. 따라서 우기 운동으로 불러일으키는 침입식 정치사상, 공세를 벌이는 가운데 청진세멘트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분위기를 힘 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청진시의 중요공장들에서 200일전투성과가 날을 따라

60%이상 수행

와 부속품들을 자체로 확보하였으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작업방법들도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교내를 마친 로동자들도 또다시 전투에 진입하여 두동, 세동, 일의 일을 끝내고 있으며 여기에 종업원과족까지 합세하여 세멘트증산의 풍운을 높이고 있다.

박상윤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판관전략을 세우고 종업원들의

창방성장을 적극 불리으켜

도의 애육원, 육이원과 종

제금이 200일전투목표를 기한 전에 점검하기 위한 풍공격전, 풍동전에 전진하여 차관방으로 힘 있게 벌리고 있다.

인조대리석으로 만든 식탁,

기자대의 3종의 외장재, 도색

감들을 개발한 공장에서는 저

수천m의 질 좋은

수지관을 증산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

자속이 뛰어있는 청진

수지관증산장에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6월제월을 1.20%로

수행한 기록으로 7월에는 지난

시기보다 수지관생산을 1.4

배로 창성시키고 있다.

공장에서는 하루전투목표와

고수행정형을 매일매일 정착하여

정도표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종업원들의 경쟁열을 부단히 높여주고 있다.

내고조진군의 북소리높이

울려피지는 일터마다에서는

현실 자족하모임과 전투속보를 통한 혁신식사업이 턱새있

게 벌어져 생산자대중의 전투

작사기를 비상히 앙양시켜주고 있다.

제품을 개발

국산화를 실현한 데 대한 대

당 제 7차대회의 전투과업을

높이 달고 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집삼》 형편의

제작을 개발한 8종에

50여 가지의 제품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보름동안에 7종의 측벽지구 제작

청진스러드공장의 일군들과

제작생산에 필요한 7종의

측벽지구들을 새로 제작하

에 50여 가지의 제품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제작을 개발한 8종에

매국반역당은 멸망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지난 4월의 《국회》의 원선거에서 남조선인민들은 사대대국과 파고득세, 반통일역적의 무리이며 온갖 불의와 악의 본심으로 《새누리당》에 출마한 청주를 내렸다. 《새누리당》의 선거비례는 남고 부제에 반역폐당의 매국행적을 고발하고 있다. 수년간 미국으로 떠난 남조선인민들의 단호한 선책이었고 역사의 엄정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새누리당》에 거리를 놓은 민심의 심판에 도전하면서 위기를 수습하고 새집권의 약장을 실현하려고 미처 날뛰고 있다. 반역폐당이 그 무슨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내놓은 까닭과 청간을 한다. 하며 풍물인 민심을 꾀드려놓았던 것은 그 대묘적 살피이다.

하지만 그런 시종파술책으로 미국 반역당의 주악하고 썩어빠진 체질,

역시의 반통일로서의 가증스러운 물불을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

《새누리당》은 천민사대와 외세의 존

의 떠벌에서 몸이나 땅놓을 이어온

윤락 못 끊어 적무리이다.

《새누리당》의 뿌리를 파헤치면 사대

와 외세의 존의 은은한 기세를 풍긴다.

《새누리당》의 원조인 《자유당》은 비

승안역도를 목표각으로 내세우고 천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각본

에 따라 조작된 미국반역당이었다.

후 《민주통일당》, 《민정당》, 《민지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등으로 반역당

의 문체는 계속 달라지만 미국에 행

복으로 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미국

의 소발, 천민사대정치의 아성이

점점에서는 걸고 다를 바가 없다. 바

로 그런 것으로 하여 렉터드 남조선의

반역정치는 미국의 빠리를 위해 민족

의 존엄과 빠리를 팔아먹는 매국반역

으로 일관되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강점을

합법화하면서 임의의 시각에 세 천재

의 도화선에 불을 달수 있게 한 남조

선미국《호상방위조약》에 맞도장을

은 미국도, 해마다 엄청난 인민세

를 미국상점에 걸게바면서 침략군

의 영구강점을 예절해 온 끝에 빠진

역적도 다른이 《새누리당》의 렉터드 조상들이이다. 남조선인민들에게 꽂중파, 치지, 불행을 강요하는 현대 관노에 끝나는 행정성령으로 미제침략군을 하내 비로 섞어 온 반역폐당의 매국행적을 고발하고 있다. 수년간 미국으로 떠난 남조선인의 떠사는 천민주주들을 내세워 대조선지역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땅파에 온 미국과 외세의 존에 땅줄을 건 피폐역적들의 꼬모걸작으로 이어진 폐의 나달이었다.

미국의 남조선강점은 데는 지속시킬 수 없는 군수 시대의 유품이다.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끌어내는 것은 시대의 절차한 요구이고 온 남한의 갈

은 지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에 거리를 놓은

시대와 민족의 지향에 도전하면서

치우스퍼를 친미굴종정책에 계속 배당

하고 있다. 우파 민족끼리의 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목록

적화해와 단합의 고민 한 전 풀풀을

모조리 말살해 버린 것도 그때문이 목

기행을 거부하면서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도 더러운

본심의 발로이다.

지금 해내외 온 거에는 북남사이의

대화와 평계개선을 위한 우파 광화국

의 성의있고 적극적인 노력을 업마를

몇이 조국통일의 새로운 장이 절처지

거수기인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에 거리를 놓은 그 무슨 《북

의 해, 미제침략기》이니, 《제국화기》

하고 고아대에 외세와 이합하여 민족

국립감찰기실을 놓았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이고 기만이었다. 《새누리당》에는

《유신》도자사의 사환관으로 암령원

나발을 웨치며 우파의 존엄을 놓았으며

주제제도를 암령으로 차지하여 차소사

를 모색하면서 북단대결을 더욱 부추

기고 있다. 한편 우파의 존엄을 놓았으며

인민에게 빠져나온 각계를 놓았으며

이제 거리를 놓은 그 무슨 《북의 통일

전선전술》이니, 뛰어나는 고약한 나발

을 놓았던 후에 폐장을 놓고 있다.

《안보정당》의 간판을 놓았지만 그

문서에 5개정당의 군사분야선임대

로 서해 5개정당의 군사분야선임대

를 싸다니며 북단대결과 북침전쟁을

유린말살되는 세계최악의 인간생지

혹, 정치적 혼란과 무정부제의 판

동을 풀리고 있다.

다급해 날 《새누리당》의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에 빠져나온다는

자는 이번 사건에 《홍보담당자

들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것이

아니라, 《회송하다》, 《느니, 하면

서 모든 죄를 이미 떠밀을 잘한

자들에 들의 후우 더운의 비난

을 모면해보려고 빠져있다. 그

리고 사전설계자들이 《판별법》을

잘 알지 못해 일년간 단순화

사건일본문에 대한 철학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부정부패사건에

는 《새누리당》의 선전업무부관

만단 자리에서 《민중은 개, 때지

로 취급하면 된다.》는 망발을

선동하는 《새누리당》에 거리를 놓

는 역사의 끝이었다.

얼마전 《새누리당》이 지난 《국

역적으로 나파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룩하려는 것은 온 거래의 한결 같은 지향이다.

하지만 그에 한시고 도전하면서 반공국대결핵통에 피눈이 피어 블리치고 우연히 목소리들이 울려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현실은 《새누리당》은 반통일역적무리가 바로 《새누리당》이다. 반통일은 《새누리당》의 세밀적 속성이다. 반역 폐당이 역 사적인 6. 15 광복선언이 인아온 자주통일을 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목록에 남조선인의 떠사는 천민주주들을 내세워 대조선지역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땅파에 온 미국과 외세의 존에 땅줄을 건 피폐역적들의 꼬모걸작으로 이어진 폐의 나달이었다.

미국의 남조선인민들은 데는 지속시킬

수 없는 군수 시대의 유품이다. 미제침

략군은 남조선에서 끌어내는 것은 시대

의 절차한 요구이고 온 남한의 갈

은 지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에 거리를 놓은

시대와 민족의 지향에 도전하면서

치우스퍼를 친미굴종정책에 계속 배당

하고 있다. 우파 민족끼리의 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목록

적화해와 단합의 고민 한 전 풀풀을

모조리 말살해 버린 것도 그때문이

기행을 거부하면서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도 더러운

본심의 발로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에 거리를 놓은 그

시대와 민족의 지향에 도전하면서

치우스퍼를 친미굴종정책에 계속 배당

하고 있다. 우파 민족끼리의 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목록

적화해와 단합의 고민 한 전 풀풀을

모조리 말살해 버린 것도 그때문이

기행을 거부하면서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도 더러운

본심의 발로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데는 지속시킬

수 없는 군수 시대의 유품이다. 미제침

략군은 남조선에서 끌어내는 것은 시대

의 절차한 요구이고 온 남한의 갈

은 지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에 거리를 놓은

시대와 민족의 지향에 도전하면서

치우스퍼를 친미굴종정책에 계속 배당

하고 있다. 우파 민족끼리의 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목록

적화해와 단합의 고민 한 전 풀풀을

모조리 말살해 버린 것도 그때문이

기행을 거부하면서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도 더러운

본심의 발로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데는 지속시킬

수 없는 군수 시대의 유품이다. 미제침

략군은 남조선에서 끌어내는 것은 시대

의 절차한 요구이고 온 남한의 갈

은 지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에 거리를 놓은

시대와 민족의 지향에 도전하면서

치우스퍼를 친미굴종정책에 계속 배당

하고 있다. 우파 민족끼리의 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목록

적화해와 단합의 고민 한 전 풀풀을

모조리 말살해 버린 것도 그때문이

기행을 거부하면서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도 더러운

본심의 발로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데는 지속시킬

<p